

2 0 2 3

I S S U E

P A P E R

2023 이슈페이퍼 vol.02

# 지표와 데이터로 본 국민통합 및 사회 갈등현황과 추세분석 연구

제 02 호

국민통합과 국민행복

# 목 차

## □ 요약

I. 들어가며	3
II. 우리나라 국민행복의 변화	6
1. 세계행복보고서로 본 국민행복	6
2. 사회통합실태조사로 본 국민행복	10
III. 국민행복의 조건	11
IV. 국민행복을 위한 과제	20
부록 1. 세계행복보고서와 사회통합실태조사 문항비교	25
부록 2. 갤럽 월드 폴 설문문항(원문)	26
부록 3.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설문문항(원문)	27
부록 4. 2023년 주요 국가 지표별 순위 비교	28

## 표 차례

[표 1] 우리나라보다 국민행복이 높은 56개국	7
[표 2]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국민행복	10
[표 3] 세계행복보고서의 국민행복 요인 지표	11
[표 4] 우리나라와 핀란드의 국민행복과 영역별 지표 간 비교	13
[표 5] 세계행복보고서의 우리나라 국민행복과 영역별 지표 변화	14
[표 6]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지표별 설문문항	15
[표 7] 세계행복보고서와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국민행복 지표 비교	16
[표 8] 국가별 국민행복과 영역별 지표 간 관계	18

## 그림 차례

[그림 1] 국가별 국민행복지수 분포도	7
[그림 2] 우리나라 국민행복과 순위 변화	8
[그림 3] 세계행복보고서와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국민행복 비교	10
[그림 4] 국가별 행복불평등도와 국민행복 간 관계	19
[그림 5]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지표별 비교	21

## 요약

국민통합위원회는 2022년 국민통합지표체계에서 대표지표 중 하나로 ‘행복지수’를 선정하였다. 이 글은 대표지표에 관한 두 번째 이슈페이퍼로 국민통합의 목적인 국민행복에 대해 국내외 데이터를 통해 1차적으로는 국민행복지수라는 데이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방법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행복을 높이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할 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10년 간 국민행복을 측정한 국내외 보고서를 비교하고자 한다. 국제적으로는 국가 간 국민행복을 측정해온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WHR: World Happiness Report)이며 국내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보고서(KSIS: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이다.

먼저 세계행복보고서를 보면 2023년 우리나라는 2022년에 비해 순위는 59위에서 57위로 두 단계 상승했다. 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순위는 2013년 36위로 가장 높았으나 2016년 이후에는 60위 내외의 순위를 보인다. 이와 같이 순위가 변동을 보이긴 하지만 사실 국민행복의 측정값은 2015년 이후로 큰 변화가 없다. 더구나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행복은 5.862~6.040 범위에 있으며, 순위로는 42~68위에 해당한다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순위의 오르고 내림이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행복감이 느리지만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국민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 두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는 행복의 기본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 건강은 세계 최상위권에 있으나 그 외 조건 중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지지’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삶의 선택 자유’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금보다 국민행복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위 두 영역에서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국가 정책과 사회발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후반 이후 사회적지지와 삶의 선택 자유 영역에서 국민들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 혹은 행복의 정도를 측정하고 숫자로 나타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재의 국민행복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국민행복의 정도를 숫자(행복지수)로 나타내지만 행복지수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 특히 높은 순위가 행복한 국가 낮은 순위가 불행한 국가라는 인식은 지양해야한다. 다른 국가와의 비교보다 국민행복지수가 정제된 이유를 돌아보고 더 나아가기 위해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해야할 일을 찾는 참고자료로 삼는 것이 행복지수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국내외 많은 연구자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소득과 건강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국가에서 국민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이 자신의 삶을 찾고, 실현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이 어려울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성별, 소득, 나이, 출신 등의 이유에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국가에서 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더불어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서로를 신뢰하고 통합되어야만 한다. 최근 높아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 갈등들은 젠더, 소득, 계층, 환경 갈등 등 위와 같은 조건들을 이룰 수 없다고 느끼거나, 누군가로부터 그 기회를 빼앗긴다고 느낄 때 촉발되고 더 심화된다고 할 수 있으며, 갈등의 심화는 결국 모두의 행복을 낮아지게 만든다. 따라서 갈등의 원인을 찾고 해결해나가면서 국민통합을 이루어나감으로써 국민행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국민통합과 국민행복

---

노승철(한신대학교)

## I. 들어가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 ‘충분한’, ‘만족’, ‘기쁨’과 같이 행복은 개인의 매우 주관적인 감정과 상태이다. 따라서 누가 더 행복한가는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행복한 삶은 전적으로 개인의 몫인가? 국가에서는 국민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밝힘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민통합위원회는 2022년 국민통합지표체계에서 국민행복은 국민통합의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국가가 추구해야할 목표는 국민행복이며 국민통합은 국민행복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통합의 대표지표 중 하나로 국민행복의 수준을 측정하는 ‘행복지수’를 선정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행복의 철학적 정의에서 나아가 국민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측정해야 하는 실질적인 과제가 생긴다. 국민이 얼마나 행복한지 더 행복해지기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개인의 주관적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외에서는 행복(Happiness), 삶의 질(Quality of Life),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웰빙(Wellbeing) 등의 이름으로 국가나 도시의 행복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유엔(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별 행복, 삶의 질 등을 측정해 발표하고 국내에서도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가 매년 발표되고 있다. 행복에 대한 다양한 정의만큼 측정 방법과 지표들도 다양한 관점에서 개발되어왔지만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개인들에게 얼마나 행복한지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다. 이는 행복이 주관적 감정이라는 것에 맞게 개인들이 직접 행복한 정도를 응답하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 가령 소득수준, 건강 상태, 교육 수준 등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이용해 행복을 측정한다. 때로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모두 포함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위 두 가지 접근방법이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니 어느 것이 나은 방법이라고 할 순 없다. 전자는 개인의 행복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으니 더 좋을 수 있으나 질문 방법과 질문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후자는 행복의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진짜 행복해지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국내외 두 개 보고서와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행복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비교하고자 하는 두 보고서는 국가 간 국민행복을 비교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WHR: World Happiness Report)와 우리나라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보고서(KSIS: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이다. 세계행복보고서는 2012년부터 10년간 전 세계 140여 개국의 국민행복을 조사하여 매년 발표해왔으며, 국내외에서 국가 간 국민행복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결과이다. 한편 사회통합실태조사도 2013년부터 행복, 삶의 만족도, 신뢰, 관용 등 세계행복보고서와 유사한 조사항목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둘은 국민행복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보고서가 국민행복의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적절한 비교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먼저 세계행복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행복의 국가순위가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고, 이어 그 순위를 매기는 데 사용된 데이터를 통해 다시 한번 국민행복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국가순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한 상대적인 우리나라 국민행복의 위치라면 데이터는 측정된

값이기 때문에 상대적 변화와 절대적 변화를 동시에 고려해보기 위함이다. 그리고 국민행복을 높일 수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두 보고서 데이터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국가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볼 것이다<sup>1)</sup>.

---

1) 두 보고서의 국민행복 측정 방법과 지표들을 부록 1에서 비교하였다.

## II. 우리나라 국민행복의 변화

### 1. 세계행복보고서로 본 국민행복

2023년 3월 20일, 유엔 산하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SDSN)는 ‘2023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날은 유엔이 정한 세계행복의 날이다. 이 보고서는 2012년 처음 발간되어 지난 10년간 국가별 국민행복(National Happiness)을 측정하고, 그 조건들을 연구해왔으며 매년 발표 때마다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보고서이다. 2023년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137개국의 국민행복을 발표하였고 우리나라는 57위로 2022년 59위에서 두 계단 상승하였다.

세계행복보고서는 각 나라의 국민행복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세계행복보고서는 갤럽이라는 글로벌 리서치회사에서 수행하는 갤럽 월드 폴(Gallup World Poll)의 자료를 이용한다. 이 조사는 매년 약 140개국에서 약 1,000명에게 얼마나 행복한지 질문한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맨 아래의 0부터 맨 위의 10까지 번호가 매겨진 사다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다리의 윗부분 10점은 당신에게 가능한 최고의 삶을 나타내고, 사다리의 아랫부분 0점은 당신에게 가능한 최악의 삶을 나타냅니다. 현재 자신이 서 있는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끼십니까?”<sup>2)</sup>*

이 질문은 캔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라는 척도로 알려져 있으며, 응답자들은 현재 자신의 수준을 0~10까지 응답한다. 질문에서 본 것과 같이 사실 세계행복보고서의 국민행복은 “행복”이라기보다는 “삶의 수준 또는 평가”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sup>3)</sup> 당연히 “수준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2) 영어 원문 질문은 부록 참조

3) 실제 세계행복보고서도 국가별 순위를 행복 순위(Ranking of Happiness)로 표기하지만, 해석은 “life evaluations (answers to the Cantril ladder question) for each country”로 한다.(2023 세계행복보고서, p.32)

최고와 최악 모두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삶의 수준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

세계행복보고서는 3년간 조사 결과 평균을 이용해 그 해의 국민행복을 측정한다. 따라서 2023년 국가별 국민행복은 2020, 2021, 2022년의 평균이다. 2023년 우리나라는 57위이며, 국민행복은 5.95이었다. 국민행복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로 7.80이며, 2018년 이후 6년 연속 1위이다. 137개국의 평균 국민행복은 5.54(중앙값 5.68)로 우리나라는 중간에서 다소 높은 수준이다.

그럼 행복한 나라들은 어디에 있을까? 세계행복보고서 홈페이지<sup>4)</sup>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조사 대상 국가들의 국민행복 분포를 볼 수 있다. 국민행복이 높은 국가들은(초록색 원) 주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분포되어 있고, 낮은 국가(오렌지색 원)들은 아프리카 대륙에 많이 분포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속한 중간 순위 국가들은(노란색 원) 동유럽, 아시아에 넓게 분포한다.



| 그림 1 | 국가별 국민행복지수 분포도

2023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보다 국민행복이 높은 56개국<sup>5)</sup>은 <표1>과 같다. 1위를 차지한 핀란드를 포함해 유럽 국가가 31개국으로 가장 많고,

4) 세계행복보고서 홈페이지(<https://worldhappiness.report/data/>)

5) 표 1의 대륙 구분은 세계행복보고서의 구분을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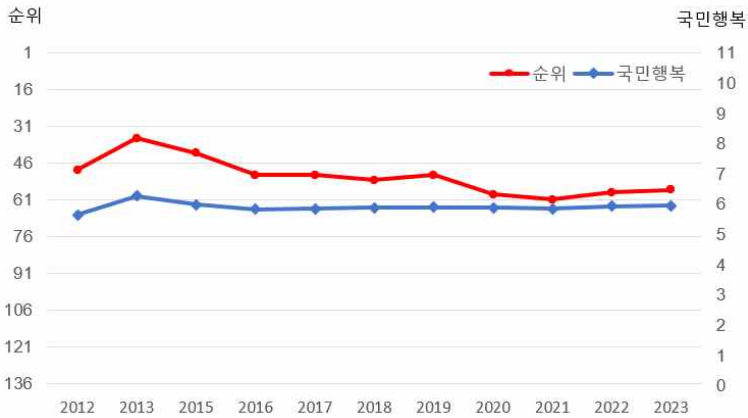
아메리카 대륙에 15개국, 아시아, 아프리카, 독립 국가에 8개 나라가 속해있다. 일반적으로 “잘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로 인식되는 나라들도 속해있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의외의 나라라고 생각되는 국가들도 있을 것이다.

| 표 1 | 우리나라보다 국민행복이 높은 56개국

대륙		국가명
유럽	서유럽(19)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독일, 벨기에,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사이프러스, 포르투갈
	중앙 / 동유럽(12)	체코,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코소보, 폴란드, 라트비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아메리카	북아메리카/오세아니아(4)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남아메리카/캐리비안(11)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칠레, 멕시코, 파나마, 니카라과, 과테말라, 브라질,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아시아	동아시아(2)	대만, 일본
	동남아시아(2)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중동/북아프리카(4)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독립국가(2)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렇다면 국민행복 순위를 좀 더 살펴보자. <그림 2>는 지난 10년간 발표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민행복 순위를 나타낸다. 먼저 2023년 우리나라는 2022년에 비해 순위는 59위에서 57위로 두 단계 상승했으며 국민행복은 5.935점에서 5.951으로 0.016 상승했으나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 세계행복보고서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순위는 2013년 36위로 가장 높았다. 이후 다소 낮아져 2016년 이후에는 60위 내외의 순위를 보인다. 국민행복 순위는 시기에 따라 변동을 보이지만 사실 국민행복은 2015년 이후로 큰 변화가 없다. 국민행복이 나라별 약 1,000명 표본조사를 통해 국민행복을 계산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국민행복은 정확한 값보다는

일정한 범위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세계행복보고서에서도 95% 신뢰구간<sup>6)</sup>이라는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행복은 5.862~6.040 범위에 있으며, 순위로는 42~68위에 해당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 역시 신뢰구간을 감안하면 발표된 순위에서 상·하위 10위에 속할 수 있는 범위를 보이기 때문에 국민행복과 이를 기준으로 한 작은 순위 변화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민행복은 5.9~5.8 사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가장 순위가 많이 하락한 2019년(51위)과 2020년(59위)도 국민행복은 단지 0.02 낮아졌을 뿐이다.



|그림 2 | 우리나라 국민행복과 순위 변화

6) 95% 신뢰구간은 설문조사를 100번 시행했을 때 국민행복 점수 95개가 속하는 범위를 의미한다.

## 2. 사회통합실태조사로 본 국민행복

이제 국민행복을 다른 기준으로 측정한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조사는 전국 만 19세~69세 이하의 약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해 0(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5(보통) ~ 10(매우 행복했다)까지 11단계로 응답을 받는다.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세계행복보고서보다 더 직접적으로 개인들의 주관적 행복감을 질문한다. 단, 질문에 '어제'라는 단어가 있고, 세계행복보고서가 3년을 평균하는 데 반해 사회통합실태조사는 매년 결과를 보고서에 사용하는 차이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만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도 할 수 없다.

| 표 2 |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국민행복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행복감	6.3	6.2	6.3	6.4	6.5	6.6	6.5	6.4	6.7	6.7

자료: 국가통계포털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국민행복(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국민행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나, 세계행복보고서와의 비교를 위해 행복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을 국민행복이라고 표현하였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2013년 6.3에서 2023년 6.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그림 3 | 세계행복보고서와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국민행복 비교

<그림 3>은 세계행복보고서와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지난 10년간의 결과 비교이다. 세계행복보고서의 국민행복 보다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값이 다소 높으나 두 보고서가 전혀 다른 질문 문항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 응답자도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순 없다. 특히 세계행복보고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행복”을 질문하기보다 “삶의 평가”에 대해 질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 IV. 국민행복의 조건

세계행복보고서의 국민행복 순위를 보고 나면 “왜 나라마다 국민행복에 차이가 있을까?” 또는 “왜 저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행복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세계행복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아래와 같은 6가지 지표와 국민행복 간의 관계를 연구해왔다. 종종 세계행복보고서의 국민행복이 아래 6가지 지표를 종합한 결과로 오해되곤 하는데 사실 국민행복은 아래 6개 지표와는 관계없는 설문조사 문항이다<sup>7)</sup>. 비록 6개 지표 중 사회적지지, 삶의 자유, 관용도, 부패인식을 묻는 질문이 국민행복

| 표 3 | 세계행복보고서의 국민행복 요인 지표

국민행복요인	지표	측정 방법
소득	1인당 GDP	국제 통계
건강수명	건강수명(Healthy Life Expectancy)	국제 통계
사회적지지 (Social support)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부	설문조사 (갯텨 월드 폴)
삶의 선택 자유 (Freedom)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부패 (Corruption)	비즈니스와 정부의 부패인식정도	
관용 (Generosity)	국가 소득 대비 기부금 실적	설문조사 (갯텨 월드 폴 + 통계 모델)

주: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기간을 제외한 수명임. 신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의미함(인용: 국가지표체계)

과 같은 설문조사(갤럽 월드 폴)에 있는 질문 문항이지만 이 지표들로 국민행복이 계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6개 지표 중 소득(국민 1인당 GDP<sup>8)</sup>), 건강(건강기대수명)은 설문조사와는 관계없이 국제 통계를 통해 계산되는 값이다<sup>9)</sup>.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는 “어려움에 닥쳤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는가?”에 대한 예/아니오의 응답이며, 삶을 선택할 자유(Freedom to make life choices)는 “자신의 나라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에 대한 예/아니오의 응답이고, 부패인식(Perceptions of corruption)은 “자신의 나라에서 비즈니스에서 부패가 만연한가?”, “공공행정에서 부패가 만연한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예/아니오 응답의 평균이다. 마지막으로 관용도(Generosity)는 좀 다른 지표이다. 이 지표는 설문조사에서 “지난달에 얼마나 많이 기부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소득 대비 얼마나 많이 기부했는가를 회귀분석이라는 통계 모델<sup>10)</sup>로 계산한 값이다. 이 값이 양수(+)라는 것은 소득수준에 비해 많이 기부했다는 것이며, 0 은 소득수준에 기대되는 만큼 기부했다는 것이고, 음수(-)는 소득에 비해 기부금이 적다는 뜻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민행복과 6개 지표별 순위를 비교해보면 <표 4>의 왼쪽 그래프와 같다. 붉은 선은 우리나라 국민행복 순위 즉 57위를 나타내며, 육각형의 안쪽은 국민행복 순위보다 낮은 지표, 바깥쪽은 국민행복 순위보다 높은 지표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소득은 137개 국가 중 24위이며, 건강은 4위, 부패인식은 41위(순위가 높을수록 부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로 국민행복 순위보다 높다. 반면, 사회적 지지는 77위, 삶의 자유는 107위, 관용도는 90위로 국민행복 순위보다 훨씬 낮다. <표 4>의 오른쪽 그래프는 지난 6년간 행복도 1위를 차지한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비교이다. 우리나라와

7) 영어 원문 질문은 부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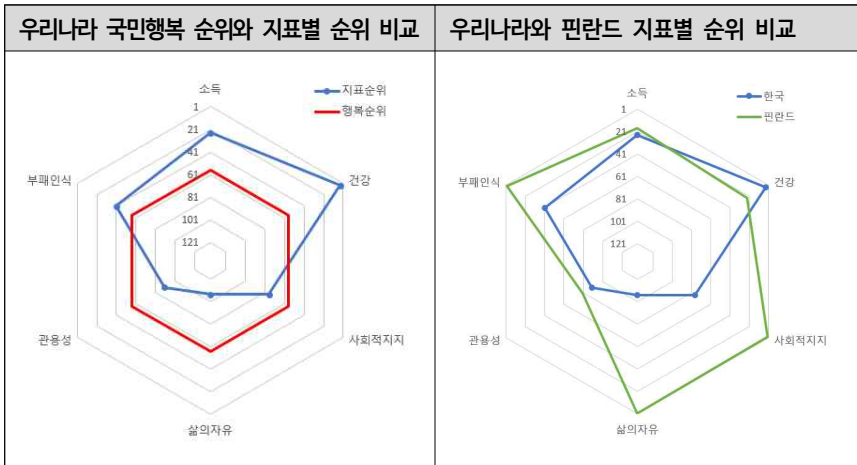
8) GDP(Gross Domestic Product)는 국내 총생산으로 국가 간 소득수준을 비교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지표이다.

9) 2022년에 발표되지 않은 통계는 이전 시점의 값들을 이용해 추계한 결과를 사용한다.

10) 지난달 기부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나라의 소득, 1인당 GDP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의 잔차이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표는 삶의 자유와 사회적지지로 핀란드는 삶의 자유 1위, 사회적지지 2위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인다.

| 표 4 | 우리나라와 핀란드의 국민행복과 영역별 지표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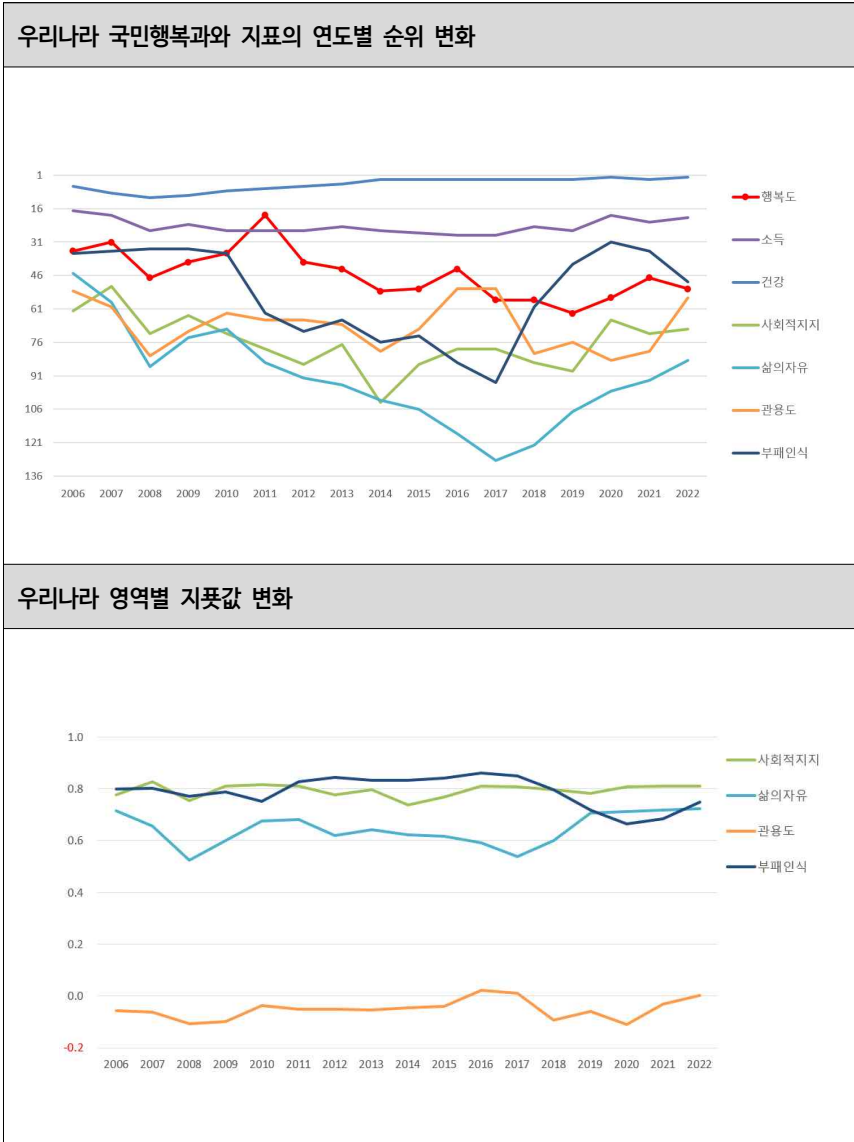


한편 <표 5>의 두 개 그래프는 세계행복보고서에서 발표하는 6개 지표의 우리나라 순위와 그 측정값 그래프이다<sup>11)</sup>.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소득과 건강은 세계행복보고서 처음 발표부터 국민행복보다 높은 순위에 있었으며, 지난 17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그 외 4개 지표의 순위는 연도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대체로 4개 지표 모두 2017년 또는 2018년 이후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 특히 앞서 핀란드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삶의 자유(하늘색), 사회적지지(초록색)는 지속적으로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순위의 변화가 영역별 지표의 개선 혹은 악화를 나타낼까? 두 번째 그래프는 순위를 내기 위해 사용된 측정값(지표값)들이다. 4개 지표 중 2017년 이후 삶의 자유와 부패인식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순위의 변화만큼 실제 측정값의 변화는 크지 않다. 즉 순위라는 상대적인 비교가 아닌 조사 결과의 절댓값을 본다면 우리 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1) 세계행복보고서는 2012년 처음 발표되었으나, 2012년 보고에서 2005~2012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 표 5 | 세계행복보고서의 우리나라 국민행복과 영역별 지표 변화



※ 주: 그래프 X축의 연도는 세계행복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갤럽폴)의 실시연도임. 2023년 세계행복보고서는 2020, 2021, 2022년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경향이 세계행복보고서(갤럽 월드 폴)만의 결과일까?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도 세계행복도의 지표와 비교할 수 있는 질문 문항을 가지고 있다. 세계행복보고서의 소득(1인당 GDP)과 건강수명은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개인의 삶에 대한 4개 지표에 해당하는 질문을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월드 갤럽 폴의 질문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의미의 질문들이다.

<표 7>의 4개 그래프는 지표별로 세계행복보고서(WHR)와 사회통합실태조사(KSIS)의 연도별 측정값을 비교한 것이다. 두 조사의 질문 문항과 응답방법(척도)이 달라 값을 비교할 순 없지만, 각 조사에서 나타난 지표별 변화는 비교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행복보고서와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지표들의 변화는 매우 유사하다. 4개의 지표 모두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으나, 대부분의

| 표 6 |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지표별 설문 문항

지표	질문	응답 방법
사회적지지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수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수 우울할 때 이야기를 나눌 사람 수
삶의 선택 자유	귀하는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0~10점
청렴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얼마나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기관에 대해 1~4점 정부 부처, 지방자치 단체 등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등 공기업, 군대, 노동조합, 시민단체 방송사, 신문사, 대기업, 공기업 교육기관, 의료기관, 종교기관, 금융기관
관용	귀하가 내는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면,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0~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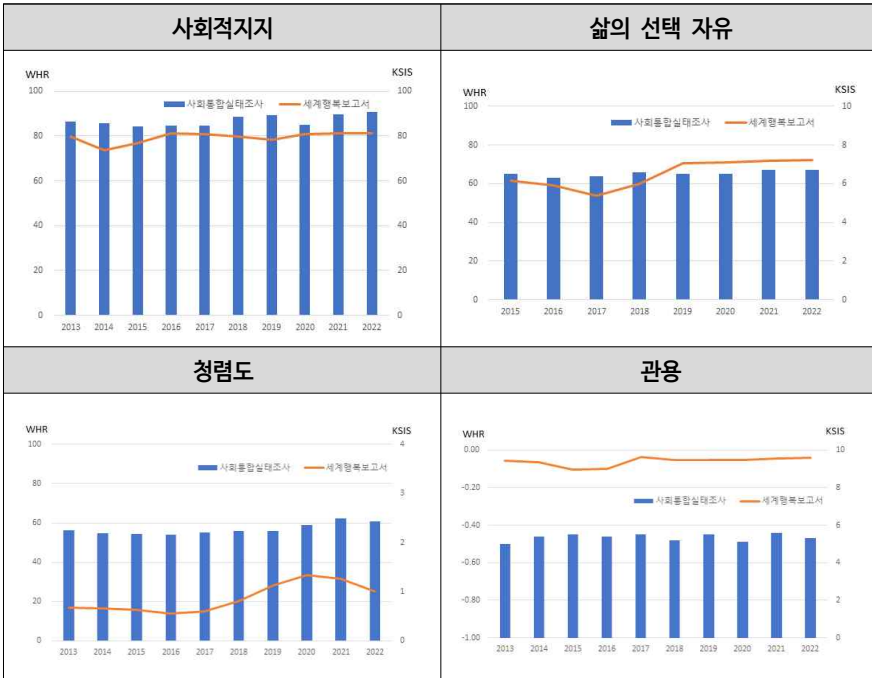
자료: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

주: 설문 문항은 부록2 참조

지표가 2017년 이후 상승했고, 2020년 이후로는 큰 변화가 없다.

두 조사에서 차이를 보이는 지표는 청렴도로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2020년 이후 청렴 인식이 줄어들지만,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상승하는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이는 두 조사에서 사용하는 설문 문항에서 평가 대상의 차이(세계행복보고서에 사용하는 겔립 월드 폴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만,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청렴”한지를 묻는다)와 응답 방법(겔립 월드 폴은 예/아니오로 응답하지만,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1-4 단계로 응답한다)의

[ 표 7 ] 세계행복보고서와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국민행복 지표 비교



- 주1: WHR-세계행복보고서의 지פות값, KSIS-사회통합실태조사의 지פות값
- 주2: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임
- 주3: 사회적지지의 사회통합실태조사 지표는 3개 부문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우울할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럴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비율의 평균값임
- 주4: 청렴도의 경우 세계행복보고서는 부패인식도를 측정하지만, 사회통합실태조사와 비교를 위해 부패인식도(%)를 100에서 빼서 값을 산출한 결과이며,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청렴도를 평가하는 17개 기관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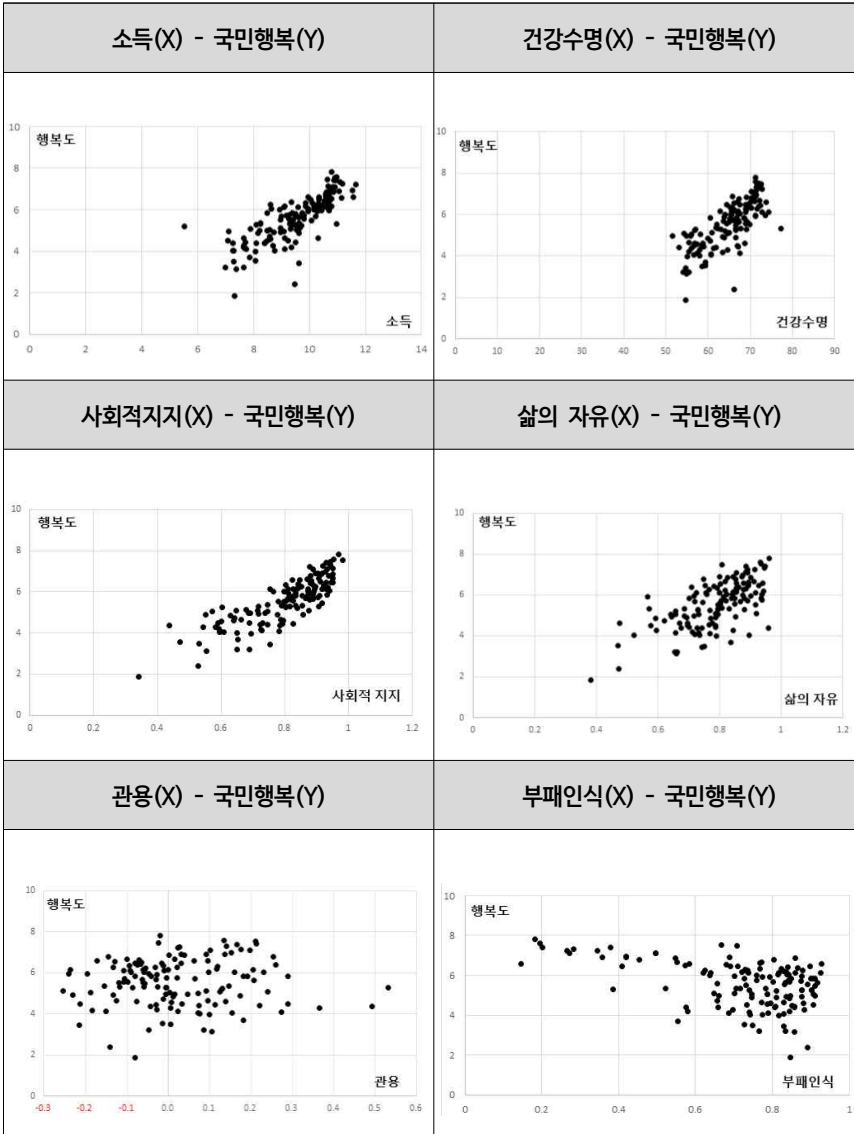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조사에서 모두 2010년대 중반에 비해 청렴도가 최근까지 상승하는 같은 경향을 보인다.

세계행복보고서로 돌아와서 위 6개의 지표가 높으면 국민행복이 높아질까?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는 세계행복보고서를 통해 국민행복과 지표 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세계행복보고서의 국민행복과 6개 지표는 서로 다르게 측정된 값들이다. 세계행복보고서는 지난 10년간의 연구에서 선형회귀분석이라는 통계적인 모델을 이용해 검증한 결과 6개의 영역이 국민행복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에 점점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사회적지지”와 “삶의 자유”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행복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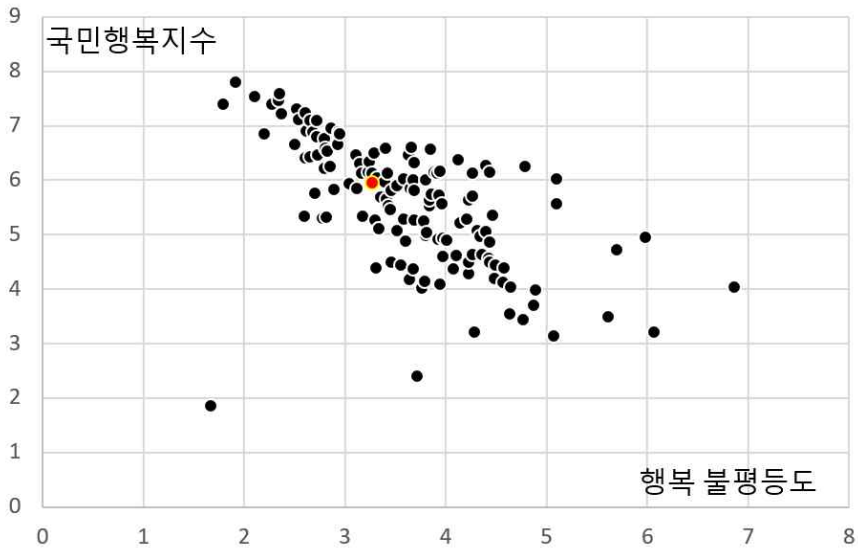
<표 8>에 있는 6개의 그래프를 통해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각 그래프의 점들은 2023년 조사 대상 137개국을 나타내며 X축(6개 지표)과 Y축(국민행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프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국가일수록 지표의 값도 높고 국민행복도 높은 국가임을 의미하며 반대로 오른쪽 아래에 위치할수록 지렛값은 낮고 국민행복도 낮은 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아랫줄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면 부패인식이 높을수록(부패하다고 느낄수록) 국민행복이 낮아지고, 다른 모든 지표에서는 값이 클수록 국민행복이 높아진다. 특히 일반적으로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생각하는 높은 소득수준과 건강만큼이나 사회적지지와 삶의 자유도가 높을수록 국민행복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래프에서 점들이 좌우로 넓게 퍼져있을수록 국가 간에 차이가 큰 지표들이다. 이를 통해 보면 부패인식과 관용이 다른 지표들보다 국가 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지표가 달성하기 어렵지 않은 목표라면 국가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니 그런 의미에서는 국가에서 부패인식과 관용을 높이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짐작할 수 있다.

| 표 8 | 국가별 국민행복과 영역별 지표 간 관계



세계행복보고서는 6개의 지표와 함께 국가 내에서 행복 불평등도가 낮을수록 국민행복이 높아질 수 있음을 제안한다. 행복 불평등도는 각 나라에서 행복 상위 50%와 하위 50% 간 평균 행복의 차이를 의미하며, 이 격차가 작을수록 전체적인 행복도가 높다. <그림 18>은 2023년 국가별 행복 불평등도와 국민행복지수를 보여준다. 행복불평등도가 커질수록 국민행복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붉은 점)의 행복불평등도는 3.274로 평균(3.64)보다 낮고, 국민행복(5.951)은 평균(5.54)보다 높은 편으로 왼쪽 위에 있는 국가들 즉 행복불평등도는 낮으면서 국민행복이 높은 그룹으로 가는 중간 위치 정도로 볼 수 있다.



| 그림 4 | 국가별 행복불평등도와 국민행복 간 관계

### Ⅲ. 국민행복을 위한 과제

지금까지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와 우리나라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과 국민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국민행복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방법에 따라 결과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보고서는 모두 우리나라 국민행복이 지난 10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국민행복과 관련이 있는 6개 사회경제적 지표는 두 조사에서 모두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같은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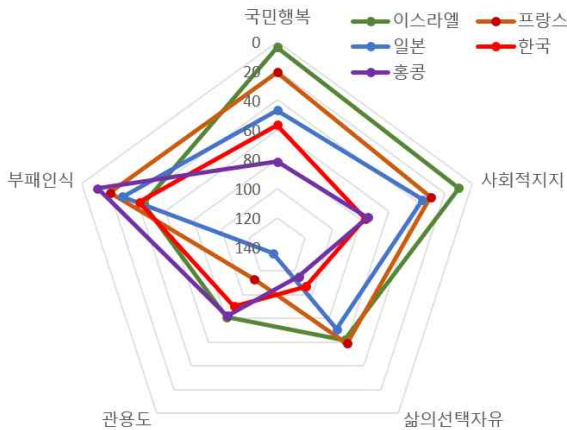
약 140개 국가의 국민행복을 측정하고 분석하면서 세계행복보고서의 연구진들은 더 행복한 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세계행복보고서를 포함해 국민행복을 측정한 조사 결과에서 순위를 국가의 성적표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순위가 높으면 행복한 나라 순위가 낮으면 불행한 나라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약 140여개 국가의 조사결과를 OECD, 아시아 등과 같이 특정 지역 또는 그룹 내에서 순위를 내 마치 불행한 국가인 것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지양해야한다. 세계행복보고서에서 보았듯이 국민행복 순위가 오르고 내리지만 국민행복 측정값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더구나 세계행복보고서가 제시한 신뢰구간이라는 통계적 지표로 볼 때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순위로는 42~68위에 해당할 정도로 큰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위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국민행복이 왜 정체되어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행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된 6개의 지표가 왜 변하지 않는지, 더 나아지는 데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고민들의 시작을 찾는 것이 다양한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 국민행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행복을 높이기 위해 즉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가? 첫 번째 단서를 우리와 소득과 건강수준이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를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2023년 세계행복보고서 기준으로 소득은 24위이며, 건강수준은 4위이다. <그림 5>는 우리나라의 소득 및 건강 수준이 비슷한 4개국이다.<sup>12)</sup>



[그림 5]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지표별 비교

이들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국민행복이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4위), 프랑스(21위), 일본(47위)이며, 홍콩은 82위로 우리나라(57위)보다 낮다. 각 국가마다 지표별 순위에서 특징을 보인다. 이스라엘은 부패인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고, 일본과 프랑스는 관용도에서 국민행복에 비해 순위가 낮다. 반면 우리나라와 홍콩은 사회적지지와 삶의 선택 자유 지표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순위가 낮다. 결국 우리나라는 국민행복을 높이기 위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지지와 본인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2010년 후반기에 들면서 삶의 선택 자유, 사회적지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점이다.

이와 같은 조건들은 법제도를 통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사회안전망으로써

12)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은 24위, 건강수명은 4위이다. 소득수준이 20~29위이면서, 건강수명이 1~10위 사이에 있는 국가를 소득과 건강수준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로 선정하였으며, 각 국가별 순위는 부록 4에 수록하였다.

갖추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의 역량과 자원에 따라 사회적지지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이며 이는 국민행복 전체를 낮추는 부정적인 효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과 함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삶의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어야 나아가야 한다.

나아가 세계행복보고서는 국민행복이 국가 정책의 계획과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은 국민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정책이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세계 상위권의 소득수준과 건강 보장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에서 나아가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높은 소득과 건강한 삶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사회에서 국민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 삶의 자유, 관용, 낮은 부패 등의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 사실 이와 같은 주장은 국내외 많은 연구자와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국민이 더 많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설계하고 달성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행복의 요인으로 제시한 사회적지지, 삶의 자유, 관용, 낮은 사회적 부패 등을 종합해보면 어려울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성별, 소득, 나이, 출신 등의 이유에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국가에서 살아갈 때 국민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높은 국민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서로를 신뢰하고 통합되어야만 한다. 최근 높아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 갈등들은 젠더, 소득, 계층, 환경 갈등 등 위와 같은 조건들을 이룰 수 없다고 느끼거나, 누군가로부터 그 기회를 빼앗긴다고 느낄 때 촉발되고 더 심화한다고 할 수 있다. 행복해질 기회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긴장감과 경쟁의식 그리고 그렇지 못했을 때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안전망이 없을 때의 불안감 등이 커질 때 더욱 갈등은 심해지고 서로를 돌아보는 관용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국민 간 행복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곧 행복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갈등의 원인을 찾고 해결해나가면서 국민통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국 국민행복에 이르는 것임을 세계행복보고서는 행복불평등도를 통해 보여주었다. 특히 스스로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계층과 집단에 많은 관심을 두어 소득과 건강 수준에 차이가 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삶을 만들고 이를 수 있는 나라라고 느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질 때 행복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공감대로 통합되어 더 행복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자료

UN 세계행복보고서: <https://worldhappiness.report/>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tro/LifeIntro.do>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ReList.do?seSubCode=BIZ017A001>

## 부록 1. 세계행복보고서와 사회통합실태조사 문항비교

구분		세계행복보고서(UN)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시작연도 (주기)		2012년(1년)	2013년(1년)
국민 행복	측정 자료	Gallup World Poll의 자료 이용 (140개국, 국민 각 1,000명 설문)	우리나라 전국 만 19세~69세 이하, 약 8,000명 대상 설문조사
	질문 문항	칸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 척도, <5p 및 부록1 참조>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출 방법	최근 3년간 조사 결과의 평균	매년 조사 결과
국민 행복 요인 지표	사회적 지지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부 (예/아니오)	각 항목(돈 빌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우울할 때 이야기 나눌)에 해 당되는 사람 수
	삶의 선택 자유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예/아니오)	귀하는 자신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0-10점)
측정 방법	부패 인식	비즈니스와 정부의 부패가 만연한가? (예/아니오)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얼마나 청렴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0-10점)
	관용도	국가 소득 대비 기부금 실적 (회귀분석 잔차)	귀하가 내는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0-10점)
출처(홈페이지)		<a href="https://worldhappiness.report/data/">https://worldhappiness.rep ort/data/</a>	<a href="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Relist.do?seSubCode=BIZ017A001">https://www.kipa.re.kr/site/kipa/r earch/selectRelist.do?seSubCo de=BIZ017A001</a>

## 부록 2. 갤럽 월드 폴 설문 문항(원문)

항목	자료 출처 및 설문조사 문항
행복도 (Happiness score)	“Please imagine a ladder, with steps numbered from 0 at the bottom to 10 at the top. The top of the ladder represents the best possible life for you and the bottom of the ladder represents the worst possible life for you. On which step of the ladder would you say you personally feel you stand at this time?”
소득 (Income)	The statistics of GDP per capita (variable name GDP) in purchasing power parity (PPP) at constant 2017 international dollar prices are from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 version 17, metadata last updated on Jan 22, 2023).
건강수명 (Healthy Life Expectancy (HLE))	Healthy life expectancies at birth are based on the data extracted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Last updated: 2020-12-04). The data at the source are available for the years 2000, 2010, 2015 and 2019.
사회적지지 (Social support)	If you were in trouble, do you have relatives or friends you can count on to help you whenever you need them, or not? (proportion of respondents saying Yes)
자유 (Freedom)	In your country, are you satisfied or dissatisfied with your freedom to choose what you do with your life? (proportion of respondents saying Yes)
부패 (Corruption)	Average proportion of respondents saying Yes to the following 2 questions: 1. Is corruption widespread within business located in your country, or not? 2. Is corruption widespread throughout the government in your country, or not?
관용 (Generosity)	Generosity is the residual of regressing national average of response to the GWP question “Have you donated money to a charity in the past month?” on GDP per capita.

### 부록 3.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설문 문항(원문)

항목	자료 출처 및 설문조사 문항																																																																																										
행복도	<p>1-1 귀하는 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p> <p>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행복했다</p> <p>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p>																																																																																										
사회적지지	<p>31-1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 목</th> <th>없다</th> <th>1-2명</th> <th>3-4명</th> <th>5-9명</th> <th>10명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1)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2)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항 목	없다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1)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⑤	(2)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⑤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⑤																																																																		
항 목	없다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1)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⑤																																																																																						
(2)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⑤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⑤																																																																																						
삶의 선택 자유	<p>3 귀하는 자신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p> <p>전혀 자유롭지 않다 ← 보통 → 매우 자유롭다</p> <p>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p>																																																																																										
청렴	<p>36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얼마나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 목</th> <th>전혀 청렴하지 않다</th> <th>별로 청렴하지 않다</th> <th>약간 청렴하다</th> <th>매우 청렴하다</th> </tr> </thead> <tbody> <tr><td>(1) 중앙정부 부처</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국회</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법원</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4) 검찰</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5) 경찰</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6)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청)</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7) 공기업</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8) 군대</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9) 노동조합단체</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10) 시민단체</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11) TV방송사</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12) 신문사</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13) 교육기관</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14) 의료기관</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15) 대기업</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16) 종교기관</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17) 금융기관</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body> </table>	항 목	전혀 청렴하지 않다	별로 청렴하지 않다	약간 청렴하다	매우 청렴하다	(1) 중앙정부 부처	①	②	③	④	(2) 국회	①	②	③	④	(3) 법원	①	②	③	④	(4) 검찰	①	②	③	④	(5) 경찰	①	②	③	④	(6)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청)	①	②	③	④	(7) 공기업	①	②	③	④	(8) 군대	①	②	③	④	(9) 노동조합단체	①	②	③	④	(10) 시민단체	①	②	③	④	(11) TV방송사	①	②	③	④	(12) 신문사	①	②	③	④	(13) 교육기관	①	②	③	④	(14) 의료기관	①	②	③	④	(15) 대기업	①	②	③	④	(16) 종교기관	①	②	③	④	(17) 금융기관	①	②	③	④
항 목	전혀 청렴하지 않다	별로 청렴하지 않다	약간 청렴하다	매우 청렴하다																																																																																							
(1) 중앙정부 부처	①	②	③	④																																																																																							
(2) 국회	①	②	③	④																																																																																							
(3) 법원	①	②	③	④																																																																																							
(4) 검찰	①	②	③	④																																																																																							
(5) 경찰	①	②	③	④																																																																																							
(6)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청)	①	②	③	④																																																																																							
(7) 공기업	①	②	③	④																																																																																							
(8) 군대	①	②	③	④																																																																																							
(9) 노동조합단체	①	②	③	④																																																																																							
(10) 시민단체	①	②	③	④																																																																																							
(11) TV방송사	①	②	③	④																																																																																							
(12) 신문사	①	②	③	④																																																																																							
(13) 교육기관	①	②	③	④																																																																																							
(14) 의료기관	①	②	③	④																																																																																							
(15) 대기업	①	②	③	④																																																																																							
(16) 종교기관	①	②	③	④																																																																																							
(17) 금융기관	①	②	③	④																																																																																							
관용	<p>43 귀해가 내는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면,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p> <p>전혀 없다 ← 보통 → 매우 많다</p> <p>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p>																																																																																										

자료: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

#### 부록 4. 주요 국가 지표별 2023년 순위 비교

	이스라엘	프랑스	일본	한국	홍콩
국민행복	4	21	47	57	82
소득	27	23	29	24	8
건강	7	9	2	4	1
사회적지지	10	30	36	77	75
삶의선택 자유	62	59	71	107	115
관용도	81	113	135	90	82
부패인식	44	20	29	41	11